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1월 11~12일 ‘2025 선교헌금 2차 작성’ 선교헌금 작성서, 온라인 작성서, 전화 참여

‘2025 선교헌금 2차 작성’을 1월 11일(토)과 12일(일)에 한다. 이날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전화로 참여할 수 있다.

매년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에 하는 선교헌금 작성은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행사다. 성도들이 작성한 선교헌금으로 전 세계 70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870명을 지원하고, 신규 선교사 훈련 및 파송을 한다.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와 기도편지 및 간증집 제작, 비전 세미나 개최, 기관 지원, 난민과 이주민 지원 등에도 선교헌금이 사용된다<관련 기사 6면>.

선교헌금 작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자동이체(CMS)’나 ‘봉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개인정보, 금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도 반드시 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 및 해지는 전화(02-3215-3616)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이체 날짜는 매월 25일이다. 봉투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선교헌금작성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던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섬김 덕분”이라며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이자 비전인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2000선교 본부에서 2025년 선교사 간증집 <함께 걷다>을 출간했다. 온누리교회 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메단 지역 교회 아이들.

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은혜와 감동을 생생하게 담았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문의: 02-3215-361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목회사관학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월 13~17일 마임비전빌리지, 목회자 304명 참석

국내의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과 목회 철학, 사역 방향 등을 공유하는 ‘2025 목회사관학교’가 1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마임비전빌리지(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용은길 28)에서 열린다. 전임교역자 목회사관학교 1월 13~15일, 파트교역자 목회사관학교 1월 16~17일 진행된다. 전임교역자 184명, 파트교역자 120명이 참석한다.

2025 목회사관학교에서는 개회예배, 소그룹 나눔, 비전교회 소개, 사역 발표, 미래 비전 토크쇼, 기도회, 폐회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개회예배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온누리교회 리더십’을 주제로 설교하고, 사역본부별 주제 발표도 한다.

한편 지난 1월 10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2025 상반기 Acts29 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전 세계 29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와 협력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비전 콘퍼런스에서는 오범규 장로 대표기도, 박종길 목사 설교, 이광순 장로 격려 인사,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권역별 인사, 김명현 장로 장로아카데미 소개, 강부호 목사 축도, 이재훈 위임목사 비전의 말씀, 권역별 모임 등이 이어졌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기회’(룻 1:6~7)를 주제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름의 자리로 돌아키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해외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각 해외비전교회 목사들은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권역별 인사 시간에 현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기도제목을 나눴다.

/ 홍하영 기자

용산구민과 함께 하는 신년 감사예배

1월 17일 오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용산교구협의회가 주최하는 ‘용산구민과 함께 하는 신년 감사예배’를 1월 17일(금) 오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드린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용산구 내 미자립교회 난방비 지원’을 위

한 헌금도 받는다. 후원계좌에 교회 이름으로 입금하면 된다. 후원금은 용산구민과 함께 하는 신년 감사예배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온누리교회가 이번 용산구민과 함께하는 신년 감사예배에 참석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50901-04-016184
(예금주: 용산교구협의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 종료

2025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 ‘새 힘 얻으리’가 종료됐다. 지난 1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진행됐다.

2025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1월 6일(월) ‘날개치며 솟구치는 독수리처럼’(사 40:26-31), 7일(화) ‘푸른 초장에 눕혀진 양처럼’(시편 23편), 8일(수)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는 사슴처럼’(합 3:17-19), 9일(목)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시 68:13, 19-35), 10일(금) ‘사냥꾼의 덫에서

풀려난 새처럼’(시편 124편), 11일(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말 4:1-6)를 주제로 설교했다<메시지 4-5면>.

김은지 성도(서빙고온누리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면서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해를 보내고 싶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함께 성경 읽고, 듣는 ‘공동체성경읽기’

유튜브 채널, 새벽기도회, 공동체성경읽기 모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순 식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듣는 ‘공동체성경읽기’가 새해에도 이어진다. 유튜브 채널,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에서 한다. 유튜브 채널에서 공동체성경읽기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와 공동체는 매일 자정 유튜브 ‘365 성경읽기’ 채널(www.youtube.com/@every365bible)에 업로드되는 ‘2025 신·구약 함께 읽기-우리말’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는 공동체별로 매일 성경읽기 링크를 공지할 수 있는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면 된다. 공동체 총무나 순장, 정해진 사역자가 매일 자정 업로드되는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 성경을 읽은 성도들은 링크가 담긴 메시지에 ‘공감표시’를 하

거나 짧은 나눔을 통해 성경읽기를 독려하면 더 좋다. 성경읽기 진도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 공동체성경읽기는 1월 13일(월)부터 재개된다. 매주 월~금 오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매일 공동체성경읽기 1독 진도에 따라 함께 성경을 읽으며, 메시지를 듣고, 기도한다.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은 3월과 9월 개강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화평홀(신동아쇼핑몰 2층)에서 모인다. 성도들이 함께 성경과 신앙 서적을 읽고 나누는 과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추후 공지한다. 문의: 02-3215-3239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나온 시온 산은 어린양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44,000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완전 수 12로 이루어지는 자승의 영역에 속한 숫자가 144,000입니다. 하늘의 승리를 경험한 교회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시온 산에 서 있는 어린양과 함께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동체 성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소속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어린양 때문이고, 어린양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린양의 은혜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어린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쓰여 있다’는 것은 어린양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이 어린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공유하고,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바라본 세상은 이 어린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어린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양과 함께 보좌를 공유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 어린양은 ‘죽임당한 어린양’입니다. 힘이 없고 유약해서 희생된 게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에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어린양과 사자,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5~6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양의 본래 정체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라고 생각하고 보았던 것의 실상이 죽임당한 어린양이요, 죽임당한 어린양으로 나타난 분의 실상이 사자입니다. 그분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일곱 뿔은 완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양으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자처럼 강한 존재가 어린양처럼 연약한 존재로 죽임을 당합니까? 완전한 능력과 지혜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 그분은 사람들을 구속해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 곧 승리자요, 정복자요,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면 사자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어린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린양의 피로 구속 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4절b).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 노래는 구속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천둥소리 같고, 하프 켜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2~3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든 시대 구속받은 이들에게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는 이 땅에서도 불려 질 것입니다.

새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으로 구속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린양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어린양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

계 14:1~5

“새 노래 부르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죽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9~10절). 오직 구속받은 이들만, 어린양으로 구속받은 이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이들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흠 없는 사람들

둘째,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4~5절).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린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로써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계 7:13~14).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어린양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해 주십니다. 법적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린양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는 정결합니다. 신랑과 연합함에 있어서 정결을 지킨 자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되는 본문의 여인은 사단이고, 사단에게 정복된 바벨론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이끄는 이교적인 사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의롭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기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셋째, 어린양을 따른 이들은 ‘죽기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12절).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계 12:11).

성도들의 인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죽기

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들이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많은 성도가 죽임 당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양을 따랐습니다. 약한 권력이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들은 어린양을 따르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충성했습니다.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인내하심으로 부활을 맞이하신 것처럼, 핍박 아래 죽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피할 길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예비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란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밧모 섬에 있었습니다”(계 1:9).

예수 안에서 환란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겪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참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장차 참여하게 될 영광과 소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린양을 따르는 삶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순풍에 돛을 단 항해가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도 인내로 헤쳐 나가며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는 삶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그것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어린양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양처럼 죽임 당하심으로 얻은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이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님들은 어린양을 따르기에 거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어린양을 따른 이들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노래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다면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인내한다면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죽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이원론

‘로터스 열매’를 먹은 사람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고난과 위험을 그린 이야기다. 오디세우스는 많은 시련을 겪으며 점차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어간다. 이 서사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관해 깊이 탐구하는 작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오디세우스의 여정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성장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오디세우스가 낯선 섬에 상륙한 이야기는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다. 그는 섬에 상륙한 이후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나서서 찾기로 한다. 이 섬에는 ‘로토과고이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디세우스와 그의 일행을 환대하며 ‘로터스 열매’를 대접한다. 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섬에서의 삶에 만족하게 된다. 로터스 열매는 망각을 가져와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 이야기에서 로터스 열매는 단순히 신화적 요소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인의 고뇌와 연결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과 욕망이 결국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로터스 열매를 먹은 것처럼 때때로 현실의 유혹에 빠져 고향인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잊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과 그 너머에 있을 궁극적인 목적을 놓친 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고향, 생명의 근원인

세상의 미련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성전의 아름다움 앞에서도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다.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경고하며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셨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한다. 겉모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며 완성의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춤을 추며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된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고요함과 평안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좇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세상에서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유현목 목사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자.”

하나님께 돌아감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갈등 속에 살고 있다. 세상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이 뒤엉켜 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 온 것 중에서 선하고 참되고 거룩한 것들만 그날에 남을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면서 고향인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역사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로터스 열매에 취해

습만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인내로 견딜 수 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은 결국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완성될 것이다. 지금의 역사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지만, 우리는

특별기고

사드 후작과 사상의 힘

지금으로부터 211년 전 이달,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가 목숨을 잃었다. 루이 16세의 단두대 처형은 1793-1794년 10개월간 프랑스 혁명가들이 약 1만 7천 명의 자국민을 처형한 ‘공포정’의 전조였다.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거나 재판 없이 살해당했다.

사상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상 심오한 사례 중 하나인 프랑스대혁명은 계몽주의에서 분출되었다. 18세기 중반, 볼테르와 디드로 같은 철학자들은 종교가 아닌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탐구만이 진정한 진보와 더 큰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디드로가 기독교에 대해 가진 적대감은 귀족에 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루이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왕이 권력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없다면 프랑스 국민이 기근에 시달리는 동안 베르사유에서 터무니없이 사치스럽게 살 권리가 없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발전시켰다. 1789년 폭도들이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 며칠 전, 그곳에 장기수감 중이었던 사람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감방에서 <소돔의 120일>의 원고를 썼다. 저자는 악명 높은 드 사드 후작이었

다. 드 사드는 자신의 소설을 ‘지금까지 쓰인 소설 중에서 가장 불순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이 소설은 성폭력, 고문, 살인의 노골적인 장면을 묘사했다. 드 사드의 동시대 사람들과 현대 역사가들은 이 소설이 ‘반자서전적’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드 사드는 연약한 젊은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평생을 감옥이나 정신병원에서 보냈고, 그의 이름은 ‘사디즘’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다.

그의 책은 끔찍한 이야기를 넘여 철학적 제안이었다. 볼테르와 디드로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자기희생의 선행과 가난한 자의 존엄성 등 기독교적 미덕은 옹호했다. 반면 드 사드는 이러한 철학적 모순을 공유하지 않았다. 저술가이자 목사인 앤드류 윌슨은 그의 저서 <세계의 재구성: 1776년이 탈기독교화된 서구를 창조한 방법>에서 드 사드는 기독교적 도덕에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했다.

“드 사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정심을 보이는 데에는 자연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리는 자연이 아닌 기독교에 빚진 환상’이라고 드 사드는 설명했

다. 미덕 역시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 방식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 사드로부터 한 세기 이후, 또 다른 철학자는 신이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극명하게 묘사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광인의 비유’에서 신의 죽음을 “이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개인의 도덕성 측면에서는 사드 후작이 먼저 여기에 도달했다. 니체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악한 사상의 실체를 실제로 탐구하고자 했다.

오늘날 가장 급진적인 성 혁명가들조차 드 사드를 자신의 지적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저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다윈 이전에 그는 이미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가장 잔인한 자가 번성하는 세상을 받아들였다. 성 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는 인간이나 신체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만 탐구했다. 그가 역겹게 묘사한 고문 장면은 20세기 나치에 의해 행해진 끔찍한 의학 실험을 예고한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증오(그는 예수를 ‘악당, 음탕한 사람, 조잡한 속임수를 쓰는 쇼맨’이라고 불렀다)는 오늘날 기독교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일 뿐 아니라 맹목한 악이라는 주장의 전

조였다.

드 사드에게 자유는 도덕이나 심지어 생물학의 제약이나 결과가 없는 순수한 허가증이 었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 따라서 어떤 설계나 도덕적 질서도 없는 세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드 사드의 비열한 행동을 비난할 명분도 도덕적 수단도 없다. 재판 관련 문건이 공개된 제프리 엡스타인과 그 리스트에 있던 남성들의 비열한 행동을 비난할 명분도, 도덕적 수단도 없다.

다행한 점은 계몽주의의 끔찍한 사상과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태양에 안전하게 묶여 있다. 현실 세계에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항상 미덕에 의해 제한된다. 이 세계관의 많은 이점 중 하나는 사드 후작 같은 타락을 맹렬히 거부하고, 건전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마리아 배어(기자, 작가, 팟캐스터, 브레이크포인트 디스워크 공동 진행자)

원문: breakpoint(240105)

오직예수 신년 새벽기도회

새 힘 얻으리

◆ 1월 6일(월)

날개치며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이사야〉 40:26~31

이재훈 위임목사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영혼에 필요한 힘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면서 힘을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지식과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27절). 하나님이 내 길을 모르시고, 내 공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불평합니다. 영혼

의 힘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악하고, 불의한 이들이 잘사는 모습을 볼 때 더욱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며 영혼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옳다고 확신하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진 우리에게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26절).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을 창조하시고, 그 별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놀랍고 섬세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낙심과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내 길과 정의를 주장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정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정의의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길과 나의 정의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택권이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고 돌려드린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기에 지치지 않습니다(28절).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난제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와 사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다.

셋째, 자신의 힘은 쉽게 사라지지만 하나님

이 주신 힘은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피곤하고 지쳐서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으로 독수리같이 솟구치며 올라가게 됩니다(29~31절). 독수리는 폭풍이 닥치면 더 높이 비상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수록 더 높이 비상하는 비결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나의 힘에 하나님의 힘을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체득할 때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을 얻고 솟구칠 것입니다. 어둠과 폭풍이 몰려와도 새로운 힘을 얻고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1월 7일(화)

푸른 초장에 눕혀진 양처럼

〈시편〉 23편

이재훈 위임목사

다윗은 두 가지 체험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목자로서의 체험입니다. 다윗은 물가와 풀밭으로 양 떼를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목자의 체험을 하나님이 어떤 목자인지를 고백하는 데 사용합니다. 둘째, 다윗은 양의 삶을 인생에 도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 돌보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1절). 〈이사야〉에서도 인간의 본성과 습관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의존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사 53:6)라는 말씀은 많은

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들도 근시안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양이 누웠다’는 것은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목자의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불신앙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다른 형태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갖게 되리라”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필요와 욕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욕심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3절에서 푸른 초장과 쉼만한 물가에 있던 양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의 길이 아닌 상태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수고와 노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푸른 초장이 아니기에 때로는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가 위험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치시는 까닭은 우리가 더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

어 주십니다. 원수 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은 밥상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평정을 잃고 평안이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식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잔에 넘치도록 기쁨을 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6절에서 양이 다시 평안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도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힘겨운 시간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어리석음, 욕심을 내려놓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십시오.

◆ 1월 8일(수)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하박국 3:17~19

이재훈 위임목사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능력이 더 나타나는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폭력과 악덕이 가득했고,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멸망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힘을 얻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기뻐했기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도리어 재난처럼, 고난처럼,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을 주셔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구약의 욕이 받았습니다. 욕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니다. 욕의 시험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반드시 시험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둘째,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기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박국이 직면한 상황은 분명 심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심판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심판의 목적 또한 구원의 이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너머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자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자가가 그토록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심판을 쏟아부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

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선하심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셋째,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했기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에게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간다면 그분이 힘이 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심판 너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견딜 힘을 얻고, 그 앞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사슴처럼 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1월 9일(목)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시편〉 68:13, 24~35

이재훈 위임목사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승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승리의 행렬’, ‘승리의 행진’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승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역사를 담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승리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승리의 역사를 들으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 비둘기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

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승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은과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며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68장 7-8절과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십니다. 시내 산마저 하나님 앞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소로 들어

가셨습니다. 이때 하나님만 광야를 가로지르시고, 시내 산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지나온 모든 여정을 회고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승리의 행렬에 참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을 광야에 완전히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행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원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의 집, 불순종의 집 등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죄의 짐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짐을 끊임없이 벗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짐을 벗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이루신 승리에 우리가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계속 쥐고 내려놓

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장차 승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을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선교적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승리하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 1월 10일(금)

사냥꾼의 밧에서 풀려난 새처럼

〈시편〉 124편

이재훈 위임목사

〈시편〉 124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일어난 일들을 3-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영적 의미는 대적, 곧 사단 마귀는 굶주린 야수와 홍수의 급류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마귀에게 희생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도록 경고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

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태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거짓된 태도입니다. 수많은 대참사,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사회 갈등과 분열 등 끊임없이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마귀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대적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7절 말씀에서 ‘사냥꾼의 밧’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먹이로 내주지 않기 위해서 새가 사냥꾼의 밧에서 나오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6절). 밧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물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양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새와 같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쉽게 유혹당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새를 잡는 사냥꾼처럼 우리를 그물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면 스스로 도망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자유입니다. 물론 그물 안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냥꾼의 밧에 걸린 죄의 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모든 영역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지킬 때만 자유

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깨뜨렸기에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아닌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의 종 된 인간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요 8:32).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법칙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에서 “사랑을 따라 서로 종노릇을 할 때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서로 물어뜯고 삼키며 피차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누리 선교, 그 뜻다한 이야기

“끝까지 남아 있는 친구가 됩시다!”

박창홍, 구자현, 김마리아 선교사의 ‘이주민과 난민사역’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한다.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성도가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운다는 의미다. 온누리교회가 매년 새해 첫 주와 둘째 주에 선교헌금을 작성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1월 11일(토)과 12일(일)에는 ‘2차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이날 예배에서는 올해 온누리 선교가 주력할 이주민과 난민사역 관련 영상을 상영한다. 2021년 8월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이하 아프간 난민)를 돕는 박창홍, 구자현, 김마리아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박창홍, 구자현, 김마리아 선교사(왼쪽부터).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생 직업이 달라진다.”

미국 이민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설이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지인이 마중을 나오면 세탁소에서, 마트 사장이 마중을 나오면 마트에서 일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에서 처음 켜는 단추의 중요성을 뜻한다. 이주민과 난민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이 말을 “그들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평생 종교가 달라진다”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주민과 난민의 초기 정착을 돕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붓는다.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 구자현, 김마리아 선교사 부부는 그들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다. 박창홍 선교사도 아프간 난민 입국 초기부터 그들의 한국 정착을 도왔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아프간 난민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고, 외로움과 고립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박창홍, 구자현, 김마리아 선교사는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온 아프간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자 친구, 이웃이다.

온누리, 아프간 난민을 만나다

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아픔을 느끼고, 공허함과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남양주M센터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아프간 난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들을 받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아프간 난민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받아주는 곳이 남양주 시내에 단 한 곳도 없을 정도였다. 그때 한 어린이집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다. 아프간 난민들을 안타깝게 여긴 한 원장이 자녀들을 보내라고 했다.

“썸머힐 어린이집 원장님의 연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어려움과 손해를 무릅쓰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서빙고온누리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선교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선교에 힘을 보태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큰 감동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사랑 덕분에

구자현, 김마리아 선교사가 사역하는 김포와 인천 상황도 비슷했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구자현, 김마리아 선교사는 갑작스러운 난민의 등장으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와 그곳에서 적응해야 하는 아프간 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웃이 되도록 가교역할을 했다.

아프간 난민 입국 초기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언어와 문화가 달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자녀들을 맡아줄 교사를 급히 찾았다. 그곳에 김마리아 선교사가 들어갔다.

“아프간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문화 차이로 인한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라 외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며 선생님에게 인사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의가 없다고 혼냈고, 아이들은 이해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은 했습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아서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교 1등을 하고, 전 과목 100점을 받던 아이가 한국에서 치른 첫 시험에서 0점을 맞고 그 충격으로 자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김마리아 선교사는 특별 수업을 생각해 냈다.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송편과 떡국을 만들고, 겨울에는 김장하고, 한국어와 예절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아프간 난민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렷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

니까 이내 한국에 대한 마음을 열고 점차 적응을 시작했다. 지금은 아프간 난민 자녀들이 교내 경시대회에서 상을 탈 정도가 됐다.

구자현 선교사는 부모들의 정착을 지원했다.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병원 등 공공기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챙겼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아프간 난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물심양면 도와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덕분이었다.

“하나님이 아프간 난민들을 이슬람 선교의 마중물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한국에 올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 일에 온누리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김포 공동체는 김포 지역 아프간 난민 가정들의 초기 정착을 도왔고, 여성 직업훈련과 학습 캠프 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천온누리교회에서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 등을 하고 있고, SNS청년부 ‘배남프’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팀에서는 아프간 난민 자녀들에게 국어, 수학, 영어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로공동체와 영어예배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아프간 난민 가정과 함께 식사하고, 나들이하는 등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기도팀의 중보도 큰 힘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그들이 교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도왔다. 고립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고, 그들의 아픔과 신음에 귀 기울이고, 함께 울었다. 이제는 함께 웃을 차례다. 아프간 난민을 둘러싼 갈등과 혐오, 적대를 사랑과 환대로 바꾸고 진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강도당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그들의 진짜 이웃이 되어야 한다. 박창홍, 구자현, 김마리아 선교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거듭 부탁하고 당부했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3년 4개월 동안 아프간 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입국했을 때 특별헌금을 봉헌했고, 지금까지도 여러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5년 선교헌금 작정을 통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요. 그들에게는 끝까지 남아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코치형 부모'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지난번에 '상담가적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어릴 적 생각이 나면서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수도 있다. 왜 나의 부모는 내가 제대로 된 발달 단계를 지나지 못하도록 했는지 의문을 품고, 마음 아파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크리스천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라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 지난 과거를 왜 자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라며 화를 내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부모와 힘들었던 경험이 나의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내가 이룬 가정에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랑과 감사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당시 부모의 입장과 환경,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를 치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준 아픔과 상처를 너무 겹내지 말고 잘 살펴봐야 한다.

한 사람의 깊은 상처는 대부분 그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상처는 안타깝게도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도 부모에게 상처받았고, 우리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에게 상처받았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흘려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 상처의 대물림을 멈추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나의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상처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고, 자녀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다. 상처와 원망으로 얼룩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내 부모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 자녀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요새 일대일 코칭이 유행이다. 코치형 리더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치형 리더가 무엇일까? 한국코치협회에서는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코치형 리더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실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수평적'이다. 부모와 자녀는 명령을 내리고 복종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실행하는 수평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 대부분 자녀와 수직적 관계를 맺는다. 자녀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않고,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맞추려 한다. 부모의 말이 법인 것처럼 여기고, 자녀는 자신의 잠재력과 상관없이 부모의 바람대로 이끌려 간다. 이런 관계는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과 잠재력을 알아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코치형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째,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어주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누가 자녀의 잠재력을 알아봐 주겠는가? 내 자녀에게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 그 잠재력을 찾아주고, 극대화해주는 게 코치형 부모의 자세다.

둘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원하는 게 없다"고 말한다. "개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게임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겠어요?"라고 묻는 부모들이 있다. 게임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간 것이다. 생각이 없

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통제를 너무 많이 받는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내 힘 좀 내 마음대로 휘둘러 봤으면 좋겠다'가 소원이다. 게임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이 괴로울수록 아이들은 게임에 더 빠져든다. 그 과정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맞다. 부모가 자녀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 보고, 도움을 줘야 한다.

셋째, 해답은 각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을 것이다. 답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자녀를 책임져야지! 그냥 내가 해결해 줘야지!"라며 발 벗고 나서기도 한다. 그런데 자녀 인생의 해답은 그의 내면에 있다. 자녀 스스로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개척할 순 없다. 그저 기도하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넷째, 코치와 함께할 때 그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코치형 부모와 함께 할 때 자녀가 더욱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자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함께 찾아주며, 자녀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코치형 부모와 함께라면 인생의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내 생각만 옳아', '내 생각만 맞아'라고 생각하면 절대 코치형 부모가 될 수 없다.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궁금해 해야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코치형 부모가 될 수 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부모를 기다린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자녀와 수평적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퐁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6편 상담가적 부모와 코치형 부모'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퐁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그림 명난희
82.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월 1, 3일
본문 <요한복음> 1장 1~4, 23~27절

1. 보기를 읽고, 말씀을 찾아 그분이 누구신지 맞춰보세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1절).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고,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3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4절).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은 요한을 많이 따랐지만, 그는 매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였어요. 요한이 자신을 낮추며 소개했던 내용이 아닌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 ①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 ②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 ③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소
- ④ 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 엘리야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돕는 세 분의 목사님과 찬양으로 섬기는 레이첼, 불쌍한 여성을 돕는 버지니아, 좋은 신문을 만드는 노먼 사장님, 요리천사 펠리시아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행동하는 모습과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았던 일, 거짓말했던 일, 욕심을 부렸던 일, 친구를 놀렸던 잘못이 떠올랐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이첼처럼 나도 유년1부 찬양팀에서 더욱 열심히 찬양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김찬우 학생
(서빙고 유년1부)

나도 레이첼처럼, 예수님처럼!

레이첼은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다. 합창단원이 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세계 여러 곳으로 공연하러 다니며 이름을 알릴 수도 있는 일이다.

레이첼의 엄마도 그 좋은 기회를 놓친다며 화를 내셨다. 하지만 레이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나도 레이첼처럼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계속 실천하고 싶다.

최근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열린올타리 사역을 통해 보육원에 있는 4살 동생을 소개받았다. 나와 다르게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4살 동생에게 우리 가족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 예수님도 고아를 돌보라고 하셨다. 동생이 어릴 때까지 연락하고, 기도하며, 가족처럼 여겨야겠다.

최솔희 학생
(서빙고 유년1부)

맛있는 말씀 해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엡 5:16)

몇 해 전, 신실한 신앙인인 개그맨 형제의 간증을 들었다. 그 간증이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개그맨이 되고 나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했다. 당시에는 개그맨 선후배 관계에서 상당한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술자리에서는 더욱 심했다고 한다. 선배가 주는 술을 후배가 마다하는 것은 선후배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었다고 했다. 한번은 그 개그맨 형제가 술을 거부했더니 한 선배가 “너 기도 잘한다며 지금 기도해 봐”라며 조롱했다고 한다. 그 순간 개그맨 형제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기회로 여기면서 선배의 왼쪽 귀에 대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신앙인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순간을 겪을 수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개그맨 형제는 선배에게 조롱당하던 순간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특별한 시간이었고, 그 개그맨 형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목표를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시간을 사라’는 의미다. 여기서 시간은 ‘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정한 시간, 어떤 기회를 사라, 쟁취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에 대해 권면하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피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회를 쟁취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 지혜가 ‘기회(카이로스)’를 붙잡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시간이 하나님 기회이자 특정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 기회를 붙잡는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매 순간이 기회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낼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붙여주신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쟁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양진범 목사
(평택온누리교회)

“주의 뜻을 분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쟁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되는데,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을 뜻한다. 반면 ‘카이로스’는 헬라 문화권에서 ‘특정한 의미 있는 시간’, ‘어떤 기회’를 뜻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된 특정한 시간을 의미한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바로 카이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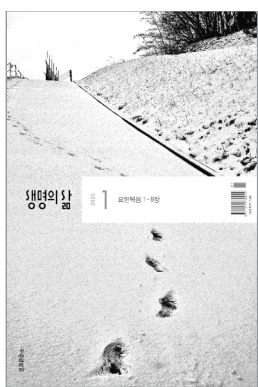
이야기한다(15절). 이 지혜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이다. 세상의 지혜와 극명하게 구분된다.

〈고린도전서〉 2장 6-8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이 지혜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한다. 즉,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이고,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안식일 논쟁 속 예수님의 정체성

1월 13일~1월 19일
〈요한복음〉 4:27~6:21



수님께 인도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내적 변화와 전도의 중요성을 묵상하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로 들어가 그분을 전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권유로 예수님이 그곳에 이들을 머무시며 말씀을 전했다. 사람들이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양식은 보내신 이(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 달라고 청한다. “네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자기 아들이 나은 줄 알게 되자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다.

묵상포인트 1: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전하려는 열정을 품는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적 변화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했다. 아들의 치유를 경험한 왕의 신하 또한 온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했다.

묵상포인트 2: 유대 사회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교훈하기 위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다. 예수님 말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심판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자.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 병자를 치유하신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치유를 문제 삼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칭하자 신성 모독으로 여겨 그분을 죽이려 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심판은 자의가 아닌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기에 의롭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유대인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분을 알 수 없고, 또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는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은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돌보시며 만나를 먹이셨듯이, 예수님도 무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의 예

수님을 묵상하자.

▶예수님이 디베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따른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먹이려 하시지만, 빌립은 돈 계산만 한다.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온 어린아이를 데려온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줬더니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이 표적을 보고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신다.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파도를 만나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오신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평안 중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부지런히 전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주수에 동참하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다. 병약할 때 인간적 시도에 앞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고 간다. 공동체 안에서 본질이 아닌 문제로 생명의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는지 살피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서 주님 손에 넘겨드리자. 그리고 올 한 해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튀르키예를 위하여!

최근 13년 동안 이어지던 시리아 내전이 종결되고, 아사드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이어지던 내전을 단 11일 만에 종식 시킨 반군 시리아민병대의 뒷배경에 튀르키예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향후 시리아 정부 통합작업에서 풀어야 할 많은 난제가 있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시리아의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튀르키예가 무리한 군사작전을 진행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또 난민들이 속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때까지 튀르키예 현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역자 가정 모두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공동체와 사역자들의 신분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시십시오. 자녀들 대학원 진학에 은혜를 주시고 학업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고(숙소, 차량, 학비 등),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맡겨 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한국문화센터 사역을 함께 동역할 단기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튀르키예 무슬림 사역을 함께 할 교회와 동역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결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역명의 선교사

기도제목 보내는 곳: wisdom7@onnuri.org



CGN 인도네시아 지사 선교다큐멘터리 '교회의 씨앗 인도네시아 까로 종족: 사랑을 심고 영혼을 거두다' 스틸컷.

‘사랑을 심고 영혼을 거두다’

CGN 인도네시아 지사 선교 다큐멘터리 제작

CGN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선교 다큐멘터리 ‘교회의 씨앗 인도네시아 까로 종족: 사랑을 심고 영혼을 거두다(이하 교회의 씨앗)’를 제작하고,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선교 다큐멘터리 ‘교회의 씨앗’은 인도네시아에 전파된 선교 역사를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약 320개 종족 중 하나인 ‘까로 종족’은 까로 고원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다. 조상의 영혼과 정령을 숭배하며 살던 그들에게 네덜란드 식민 지배 기

간에 복음이 전해졌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이 열매 맺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교회의 씨앗’에 담았다.

한편 올해 개국 20주년을 맞는 CGN은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교에 더욱 매진한다. 해외 6개 지사(미주,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프랑스)의 사역과 다양한 선교 콘텐츠도 공개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영양결핍 아동 95% 영양상태 개선

NGO 더멋진세상, ‘모리타니아 아동 지원 사업’

NGO 더멋진세상의 ‘모리타니아 영양결핍 아동 지원 사업’ 결과, 영양식이 지급된 영양결핍 아동 중 95%의 영양상태가 개선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모리타니아 엘미나시 다르비다 마을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상태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1년 동안 영양 결핍 아동

913명에게 영양식을 제공했고, 주 양육자 643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건강 검진을 하고, 영양결핍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자체 제작한 영양식을 제공했다. 주기적으로 아동들의 영양상태를 살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보건요원 30명을 세우고, 가정방문도 했다.

/ 홍하영 기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선물하세요!”

엔게레수나 빛의 도서관 후원품 모집

배수연 선교사 가정이 섬기는 엔게레수나 빛의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품을 모집한다. 엔게레수나는 아프리카 케냐 남동부 지역 마사이 부족이 사는 마을이다.

엔게레수나 빛의 도서관에서 희망하는 후원 물품은 5~10세 아동이 읽을 수 있는 영어책(학습지는 받지

않음), 190~230 사이즈의 아동 운동화, 공책, 필기도구, 수건 등이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며, 꿈을 키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은 성도들은 양재온누리교회 목회지원실로 물품을 보내면 된다.

문의: 02-570-7469

/ 홍하영 기자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새사람사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일대일 제자양육(양육 3회 이상의 양육자), 중보기도, 문서전도, 예배찬양, 약기 등이다.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고, 주중 사역이 가능한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새사람사역팀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에 수용된 재소자들을 섬기는 사역팀이다.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큐티(QT)와 일대일 제자양육, 집중인성교육 등을 하고 있다.

문의: 010-3242-8742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문의: 02-6959-0001

CGN과 함께 ‘일-일 통독’

하루 15분이면 1년에 성경 1독 가능!

‘CGN과 함께 일-일 통독’이 지난 1월 1일 공개됐다. ‘CGN과 함께 일-일 통독’ 일정을 따라가면, 하루 15분이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다. ‘CGN과 함께 일-일 통독’은 CGN TV(월~토 오전 8시, 오후 2시(본방, 재방),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유튜브(매일 오전 6시), 기독교 OTT ‘풍당’에서 볼 수 있다.

‘CGN과 함께 일-일 통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삽화, 말씀 물음을 돕는 1인 낭독(개역개정), 성지 현장 사진이 그것이다. 그만큼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기독교 OTT ‘풍당’에서 시청하면 통독 진도가 자동 기록돼 일정 관리도 편리하다.

CGN 전진국 대표는 “새해 ‘CGN과 함께 일-일 통독’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1월 화요성령집회 ‘Maranath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월 화요성령집회가 ‘Maranatha!’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

다. 1월 14일 임영광 목사 ‘깨어 준비하라’ (마 24:36~44), 21일 최성민 목사 ‘소망으로 인내하라’ (약 5:7~11), 28일 이서진 목사 ‘믿음으로 충성하라’ (눅 12:35~48)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누리요양센터 한 어르신이 세례를 받고 있다.

온누리요양센터 어르신 8명 세례

지난 12월 19일 세례식 열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인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지난 12월 19일(목) 세례식이 있었다. 어르신 8명이 세례를 받았다. 집례는 송석근 목사(양재온누리교회)가 했다.

이날 세례를 받은 한 어르신의 자녀는 “어머니가 온누리요양센터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세례까지 받아서 무척 감사하다”면서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예배와 CGN으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기적으로 어르신 세례식을 열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How Mission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1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

How Mission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월 2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How Mission 갈렙선교학교에서는 매주 조별 모임과 2월 16일과 23일 국내 선교지 탐방 등을 한다.

문의: 010-9930-1398

/ 박지혜 기자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어!벤처스 대회 ‘비영리특별상’



/ 윤정권 대표(마크시팀)

이주민들과 ‘의료진단 어플’

처음 온누리M센터를 만났을 때 기억이 난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내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질문과 마주했다.

베트남 아웃리치를 갈 때면 그곳 사람들을 위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열정과 헌신을 가득히 담아 갔다. 그 마음으로 베트남사람들을 섬겼다. 그런데 온누리M센터에서 만난 베트남사람들은 그곳에서 만난 이들과 다르게 느껴졌다. 웬지 이주민들이 기쁨과 물처럼 섞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온누리M센터에서 이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다가왔고, 더 깊이 그들을 알고 싶어졌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국가의 사회복지 체계는 이주민들에게 냉정한 선을 긋고 있었다. 내가 사는 한국 사회와 그들이 사는 한국 사회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굳이 3세대로 가지 않더라도 이곳이 선교지이고, 그들을 섬기는 게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주민들의 기도제목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처럼 탄압과 핍박과 원수를 처단해달라는 기도였다. 그 대상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다. 핍박으로

눈물이 가득한 이주민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게 두렵고 무서웠다. 그때부터 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했다.

이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으면 의료 관련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이주민을 위한 ‘의료진단 차트’를 생각했다. 개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다가왔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그 결단 이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 어!벤처스 대회에 제출한 기획서가 합격 통보를 받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 의료팀과 해외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다. 어!벤처스 대회 결선에서 비영리특별상도 수상했다.

1월부터는 온누리M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의료팀과 해외선교팀에서도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풍경에 있던 모습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주민을 위해 만든 ‘의료진단 어플’이 다양한 선교지에서 선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앞으로 개발과 업데이트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것이다.

■ 순 맞춤전도집회 참가자 간증



/ 김은정 성도(양천공동체)

무엇보다 행복하고
기쁜 ‘전도’

나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늘 불편하게 느껴져서 예수님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10년 전 온누리교회 내적치유학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뒤로는 부담스럽기만 하던 공동체에 들어갔다. 순장님과 순모님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 따뜻한 삶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은 중학교 동창 윤이었다. 윤이와 나는 서로 힘들 때 삶을 나누는 정말 친한 친구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끄는 게 쉽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말 아주 귀한 기회가 생겼다. 순에서 순 맞춤전도집회 ‘행복으로의 초대’를 연 것이다. 이번만큼은 윤이가 꼭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너와 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곳에 오면 아픈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라고 진심을 전했다.

윤이가 순 맞춤전도집회 ‘행복으로의 초대’에 왔을 때 마침 장경문 장로님이 우리 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간이었다. 장로님이 윤

이의 눈높이에 맞춰 전도지 〈최고의 행복〉으로 복음을 전해주셨다. 감사하게도 윤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순 식구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해줬다. 윤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이 정말 많이 편안해진다”고 고백했다. 앞으로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 주주일, 윤이는 약속대로 예배에 다녀갔다.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너와 순 식구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처럼 변화가는 윤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달았다. 더욱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전도대 상자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 전도는 이 세상 무엇보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다. 새해에는 이 기쁨을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아낌없이 누리기를 기도한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황영미 성도(부천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

늘 주님 웃자락 꼭 붙잡고...

북한에 살던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하늘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령이 곧 신이었고, 조선의 하나님, 즉 김일성과 김정일을 믿어야 했다. 그러다 중국에서 처음 교회를 나갔다.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가면 중국 돈 200위안을 준다는 말에 구미가 당겼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날따라 웬지 모르게 귀에 내용이 들어왔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 나쁜 거 하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 의문이 궁금증이 되었고, 점점 성경에 빠져들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찬양하다가 눈물을 왈칵 쏟았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찬양의 가사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남의 나라에서 너무 서럽고, 원망스럽고, 외톨이가 된 것만 같았는데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니 큰 위로가 됐다. 주님은 지금껏 흘린 내 눈물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주님은 이후로도 계속 내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다. 북한에서 데리고 나온 딸이 중국에서는 호적이 없어서 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교회와 선교사님을 통해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또 한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 남겨질 어린 딸을 생각하며 밤마다 흘리는 내 눈물도 닦아주셨다. 주님은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모든 과정을 겪었기에 나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한국에 들어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았다.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도 배웠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늘 주님 웃자락 꼭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 새가족 수료 간증



/ 장재희 성도(강서공동체)

은혜를 알게 하는
‘온누리교회’

지난해 5월 말, 우리 가정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3년 동안 선교하다 추방당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였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전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다 다시 못 보게 될 친구들과 동역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제 어하기 힘들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교회를 찾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교회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우리는 목숨을 다해 선교하는 교회를 찾고 싶었다.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누리교회로 인도하셨다.

모로코에서는 주일마다 온 가족이 현지인과 함께 아랍어로 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에 오고 나서는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예배드렸다. 남편은 성인예배, 첫째는 초등부, 둘째는 유년부, 셋째는 유치부, 나는 막내와 함께 영아부 예배를 드렸다. 처음 막내딸을 데리고 영아부 예배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모로코에서 드린 예배는 우리 자녀보다 항상 현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영아부 예배에서는 온전히 영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예배 이후 가져오는 ‘말씀 식빵’, ‘큐티하고 빙수 먹자’, ‘추수감사절 감티슈’ 등과 어린이용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볼 때마다 차세대를 향한 온누리교회의 마음과 아이들을 섬기는 교역자들의 기도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역자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 마음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됐다. 그렇게 전달된 사랑이 우리 가정에 은혜가 되어서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이에게 전하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은혜를 알게 하는 교회, 부모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가는 교회로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다.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4-5일, 11-12일 선교헌금 작성

| 선교헌금 작성 방법 |

1. 현장 작성(2025년 1월 4~5일, 11~12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성서 작성

2. 온라인 작성(상시 작성 가능) : 선교헌금작성 QR코드

3. 전화 작성(상시 작성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온라인 작성



제4차 로그인 보고

☎ 02)3215-3616 선교헌금 문의

| 선교헌금 작성서 작성 방법 |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CMS) :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신규 작성란> 작성
- ③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변경 작성란>작성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표시

2. 현금봉투 방식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② 현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